



여자프로농구 우리은행 위성우 감독은 5일 신한은행과의 시즌 6번째 맞대결을 앞두고 "중요한 순간 불필요한 실책을 최소화한다면 승산이 있다"고 내다봤다. 사진제공 | WKBL

3게임차 선두 위성우 감독 "신한전 실책없어야 이긴다"

오늘 우리-신한 시즌 6번째 맞대결...위감독 "집중력 승부"



"중요한 순간에 실책이 없어야 한다." 이제 3게임차로 좁혀졌다. 맞대결에서 다시 패한다면, 선두 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는 위기다. 1승에 대한 갈증이 어느 때보다 클 수밖에 없다.

우리은행 위성우(44) 감독이 신한은행전 필승의지를 밝혔다. 위 감독은 2위 신한은행과의 시즌 6번째 맞대결을 하루 앞둔 4일 "상대 홈(인천 도원체육관)에서 하는 게임이라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반드시 이겨야 한다.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신한은행과의 직전 맞대결인 1일 춘천 홈경기에서 우리은행은 2차 연장까지 치르는 접전 끝에 79-83으로 패했다. 신한은행과의 격차도 3경기로 줄었다. 5일 인천 원정에서 다시 패한다면 2게임차로 바짝 쫓기게 돼 정규리그 우승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된다. 위 감독은 "연장까지 가는 팽팽한 승부였다. 지난 게임은 두 팀 다 좋은 내용을 보였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하루 더 쉬고 게임에 나선 우리 선수들이 정신적으로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다. 중요한 순간 실책으로 흐름을 넘겨주기도 했다"고 패인을 분석했다. 이어 "5일 게임도 실책에서 승부가 갈릴 수 있다. 선수들에게 집중력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B스타즈 2연승...KDB생명 3연패
한편 3위 KB스타즈는 4일 구리체육관에서 벌어진 최하위 KDB생명과의 원정경기에서 17점·13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작성한 비키바흐와 17점·5어시스트를 기록한 강야정의 활약에 힘입어 59-56으로 이겼다. 2연승을 거둔 KB스타즈(16승10패)는 신한은행과의 간격을 2.5게임차로 좁혔다. 반면 KDB생명은 다시 3연패에 빠졌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트위터 @kimdohoney

kt 전창진 감독 과로로 입원...오늘 모비스전 결정
남자프로농구 kt 전창진 감독이 과로로 입원했다. kt는 4일 "전창진 감독이 과로로 입원해 5일 열리는 모비스와의 홈경기에는 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승기 수석코치가 1일 감독대행으로 모비스전을 지휘한다. 전 감독은 구단을 통해 "과로로 인해 몸에 다소 이상이 온 모양이다. 빨리 복귀해 팬들에게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트위터 @hk7048

롯데홈쇼핑 경영투명성위원회 사무국 자문위원(상근) 모집 공고

"롯데홈쇼핑 경영투명성위원회 사무국"은 롯데홈쇼핑이 회사 외부에 신설하는 조직으로, 롯데홈쇼핑의 투명·정령경영 정착,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파트너사 및 고객과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쟁 해결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상근 사무국입니다.

롯데홈쇼핑의 투명·정령 경영과 나아가 홈쇼핑 업계의 공정한 거래 관행, 파트너사와의 상생 경영을 선도해 나갈 도전적이고 능력 있는 전문가를 모집합니다.

Table with 3 columns: 구분, 인원, 응모 자격. Lists recruitment criteria for various roles like '사무국장' and '공정거래 전문가'.

지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15. 02. 05(목) ~ 02. 12(목)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www.lottehomeshopping.com)
문의사항 : 온라인 문의(lotte_recruit@lotte.net)

전형절차
서류심사 → 면접심사 → 최종합격 통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롯데홈쇼핑 홈페이지 참조 (홈페이지 : www.lottehomeshopping.com)

전랜 포웰, 결승골 돕고 윌커슨 막고...

35점·13R...차바위 역전결승골 도움 "끝까지 집중한 것이 승리로 이어졌다" 동부, 삼성 상대 5전승...삼성 11연패



플레이오프(PO) 진출을 위해 치열한 6위 싸움을 펼치고 있는 전자랜드가 9위 KCC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값진 1승을 챙겼다.

전자랜드는 4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벌어진 '2014~2015 KCC 프로농구' 정규리그 5라운드 KCC와의 홈경기에서 끝판 골리거가 경기 종료 2.7초를 남기고 터진 차바위(11점·3리바운드)의 역전 결승골에 힘입어 79-77, 짜릿한 2점차 승리를 거뒀다. KCC와 맞대결에서 최근 3연패를 당했던 전자랜드는 이날 승리로 올 시즌 KCC전 상대전적을 2승3패로 만들었다. 또 21승22패로 kt(20승22패)를 7위로 밀어내고 단독 6위로 올라섰다. 전자랜드가 종전 3차례 맞대결에서 내리 패하는 동안 KCC 용병 타이러 윌커슨은 30점~33점~30점 등 총 93점을 올렸다. 매치업 상대인 전자랜드 용병 리카르도 포웰에 대한 힘의 우위가 자신감으로 연결된 결과였다.

그러나 전자랜드 주장을 맡고 있는 포웰은 더 이상 당하지는 않았다. 이날 1쿼터에 파울을 3개나 유도해내며 윌커슨을 한동안 벤치에 앉혀놓았던 포웰은 승부처였던 4쿼터에는 홀로 18점을 몰아 넣는 등 총 35점·13리바운드로 팀 승리에 앞장섰다. 특히 77-77로 동점이던 종료



전자랜드 주장을 맡고 있는 리카르도 포웰(왼쪽)이 4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KCC와의 홈경기 도중 다손 심스의 골밑 돌파를 막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다. 인천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트위터 @bluemarkine007

10.2초 전 KCC 하승진의 슛을 블록한 것도, KCC의 마지막 공격 때 수비리바운드를 견어내 차바위의 결승골을 도운 것도 포웰이었다. 윌맨쇼를 펼친 포웰은 "끝까지 집중한 것이 승리로 이어졌다"며 기뻐

했다. 한편 3위 동부는 원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최하위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75-68로 승리했다. 동부는 올 시즌 삼성전 5전승을 기록한 반면 삼성은 올 시즌

팀 최하위 11연패의 늪에 빠졌다. 동부 데이비드 사이먼은 21점·12리바운드로 공수에 걸쳐 제 몫을 다했다. 인천 |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트위터 @kimdohoney

라이온스 영입 후 추락...속 터지는 '추'

(추일승 감독)

바스켓볼 브레이크

합류 후 9경기 4승5패...5위로 추락 추일승 감독 "너무 소극적 실망이다" 길렌워터와 시너지 효과 기대 이하

오리온스는 1월 12일 삼성과의 2대2 트레이드를 통해 외국인선수 리오 라이온스(28·206cm)를 영입했다. 오리온스가 유망주 가드 이호현에다 조건부로 다음 시즌 신인드래프트 선순위 지명권까지 넘겨주고 라이온스를 데려온 데는 올 시즌 성적에 '울인'하려는 의지가 담겨있었다. 그러나 오리온스는 트레이드 이후 9경기에서 4승5패에 그치고 있다. 라이온스가 합류하기 전의 성적(18승16패)보다 오히려 떨어진다. 4일 현재 22승21패를 기록 중인 오리온스는 이미 LG(23승20패)에 4위 자리를 넘겨준 데 이

어 6위권 팀들의 거센 도전으로 5위 자리마저 위협받는 처지에 놓여있다.

●추일승 감독 "라이온스, 적극적으로 뛰어야" 외국인선수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삼성 유니폼을 입었던 라이온스는 오리온스 이적 이후 '우승청부사'로 기대를 모았지만, 기대이하의 성적을 보이고 있다. 삼성 시절 평균 30분29초를 뛰며 21.38점·10.9리바운드를 올렸던 그는 오리온스 유니폼을 입은 뒤에는 23분33초 출장에 17.22점·7.9리바운드에 그치고 있다. 1월 31일 SK전에선 33분 넘게 뛰면서도 8득점으로 부진했고, 3일 모비스전에선 20분 가까이 활약하며 13점을 넣었다. 오리온스 추일승(사진) 감독은 "라이온스의 플레이가 너무 소극적이다. SK전을 마치고 한바탕 혼을 냈는데도 모비스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좀더 적극적으로 뛰어야 한다"며 "실망스러운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배어난 용병 두 명은 필요 없다?

오리온스에는 개막 8연승을 이끌었던 트로이 길렌워터(27·199cm)라는 '1순번 용병'이 있다. 오리온스가 '수비형 용병'인 찰스 가르시아(27·204cm)를 내주고 라이온스를 영입한 데는 출전시간이 30분을 넘으면 길렌워터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도 하나의 이유로 작용했다. 나머지 시간을 라이온스로 채우겠다는 의도였지만, '배어난 두 용병'은 기대한 만큼의 시너지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삼성에서 주전으로 뛰던 라이온스가 '백업 용병'이 된 뒤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모비스 유재학 감독은 "좋은 용병 둘이 있으나 한명이 있으나 코트에 서는 건 무조건 한명"이라고 지적했다. LG 테이본 제퍼슨처럼 강력한 '윌링' 용병 한명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문제는 가드진?



오리온스는 3일 모비스전에서 라이온스가 나서면 점수차가 벌어지고, 길렌워터가 출전하면 점수차를 좁히는 양상을 보이다 결국 69-80으로 완패했다. 합류 이후 9경기를 치렀지만 라이온스가 코트에 서면 불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등 '뻑뻑하다'는 느낌을 줄 정도다. 길렌워터는 골밑에 강점을 보이고, 라이온스는 상대적으로 외곽이 뛰어나다. 라이온스의 가세로 이승현, 허일영 등의 기존 포워드진이 힘을 얻을 것이라 전망이 많았지만 아직까지는 신통치 않은 편이다. 오리온스 내부적으로는 가드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오리온스 가드진이 전체적인 경기조율 측면에서 다른 팀들에 비해 약한 것도 사실이다. 김도현 기자

백규정 "美 데뷔전 킷탈락 충격...루키답게 일어서겠다"

코츠챔피언십 우승 기대 불구 킷탈락 오락가락 데뷔 일정에 훈련 부족 원인 오늘 바하마클래식...명예회복 다짐

"이게 내 진짜 실력인가라는 생각에 충격을 받았다."

1년 만에 다시 신인으로 돌아간 백규정(21·CJ오쇼핑·사진)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데뷔전에서 킷 탈락의 악몽을 경험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다. 그러나 그녀는 "루키답게 당차게 일어서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백규정은 1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오캘러에서 막을 내린 LPGA 투어 2015시즌 개막전 코츠챔피언십에서 본선 무대를 밟지 못했다. 개막 직전까지만 해도 그녀에게 쏠리는 시선이 많았다. 내심 우승까지도 기대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본 결과는 참담했다. 1라운드에서 8오버파를 기록하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2라운드에서도 2타를 더 잃은 끝에 10오버파로 대회를 마쳤다.

"창피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다. 함께 킷 탈락한 (김)세영 언니와 '다음에는 잘하자'고 서로를 위로하며 겨우 속상함을 털어냈다. 악몽 같은 기억은 오캘러 골프장에 모두 묻어두고 왔다."

사실 백규정은 대회 직전 살짝 불안함을 엿보였다. 그녀는 1월 25일 전화통화에서 "공이 똑바로 가지 않는다. 딱히 뭐가 잘못된 것 같지는 않은데, 생각처럼 공이 날아가지 않아서 걱정이다"며 데뷔전을 부담스러워했다. 다행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부상도 없다. 다만 2014시즌 종료 이후 2015시즌 개막까지 불과 1개월여밖에 시간이 없어 충분히 몸을 추스르지 못했다. 지난해 KLPGA 투어에 데뷔한 백규정은 4월 시즌을 시작해 12월 초 일본에서 열린 한일국가대항전까지 출전했다. 8개월 동안 29경기(LPGA 투어 2경기)를 소

화했다. 체력이 많이 소진된 상태에서 휴식이 충분치 않아 제대로 몸을 만들지 못했다.

개막전 준비가 미흡했던 원인이었다. 백규정은 데뷔전을 놓고 오락가락했다. 당초 계획은 2월초까지 호주에서 동계훈련을 진행한 뒤 2월 19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는 호주여자오픈을 통해 데뷔할 계획이었다. 사실 백규정은 대회 직전 살짝 불안함을 엿보였다. 그녀는 1월 25일 전화통화에서 "공이 똑바로 가지 않는다. 딱히 뭐가 잘못된 것 같지는 않은데, 생각처럼 공이 날아가지 않아서 걱정이다"며 데뷔전을 부담스러워했다. 다행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부상도 없다. 다만 2014시즌 종료 이후 2015시즌 개막까지 불과 1개월여밖에 시간이 없어 충분히 몸을 추스르지 못했다. 지난해 KLPGA 투어에 데뷔한 백규정은 4월 시즌을 시작해 12월 초 일본에서 열린 한일국가대항전까지 출전했다. 8개월 동안 29경기(LPGA 투어 2경기)를 소

화했다. 체력이 많이 소진된 상태에서 휴식이 충분치 않아 제대로 몸을 만들지 못했다. 개막전 준비가 미흡했던 원인이었다. 백규정은 데뷔전을 놓고 오락가락했다. 당초 계획은 2월초까지 호주에서 동계훈련을 진행한 뒤 2월 19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는 호주여자오픈을 통해 데뷔할 계획이었다. 사실 백규정은 대회 직전 살짝 불안함을 엿보였다. 그녀는 1월 25일 전화통화에서 "공이 똑바로 가지 않는다. 딱히 뭐가 잘못된 것 같지는 않은데, 생각처럼 공이 날아가지 않아서 걱정이다"며 데뷔전을 부담스러워했다. 다행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부상도 없다. 다만 2014시즌 종료 이후 2015시즌 개막까지 불과 1개월여밖에 시간이 없어 충분히 몸을 추스르지 못했다. 지난해 KLPGA 투어에 데뷔한 백규정은 4월 시즌을 시작해 12월 초 일본에서 열린 한일국가대항전까지 출전했다. 8개월 동안 29경기(LPGA 투어 2경기)를 소



개막전에서 보여준 성적은 분명 실망스러웠다. 그러나 이제 겨우 첫 대회를 치렀을 뿐이다. 최악으로 시작했으니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백규정은 5일(한국시간)부터 바하마에서 열리는 퓨어실크 바하마클래식(총상금 130만달러)에 출전한다. 일찍 현지로 이동한 그녀는 3일 공식 연습일에 맞춰 아침 일찍 코스로 나섰다. 불안했던 드라이브 샷도 정상을 찾았다. 백규정은 "바람이 많이 불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다. 한국에서 경험한 바람과는 또 다르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열린 대회에서 2번이나 우승한 경험을 바탕으로 영리하게 경기하겠다"며 자신감을 잃지 않았다.

주요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